



새가구증후군 추방캠페인 10,120번째 참여자 가족

사랑하는 승완아~

참을성 부족한 엄마라서 승완이에게 아직 좋은 엄마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이것만은 꼭 지킬게!

승완이가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에코마크를 꼭 확인하고 가구를 선택할거야.

동화에코보드리면 우리 가족 건강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가구 속까지 따져보는 꼼꼼함과 지혜를 갖게 되어 기쁘단다.

승완스 빼밀리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자꾸나. 사랑해~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 조은희님(35세)

가구의 위험 속에서 우리 아이를 지켰습니다

가구 속 포름알데히드의 심각한 유해성을 알게 된 26,000여명의 엄마들은
건강한 가구의 선택을 위해 동화에코보드를 꼭 확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건강한 약속에 당신도 참여하세요!

동화에코보드

검색



동화에코보드와 함께하는 새가구증후군 추방캠페인

새가구증후군의 원인인 가구 속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친환경 자재등급)을 표시해 소비자의 건강한 가구 선택을 돕습니다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는 동화 에코보드 E1EX iloom PURSYS WOOAMI 가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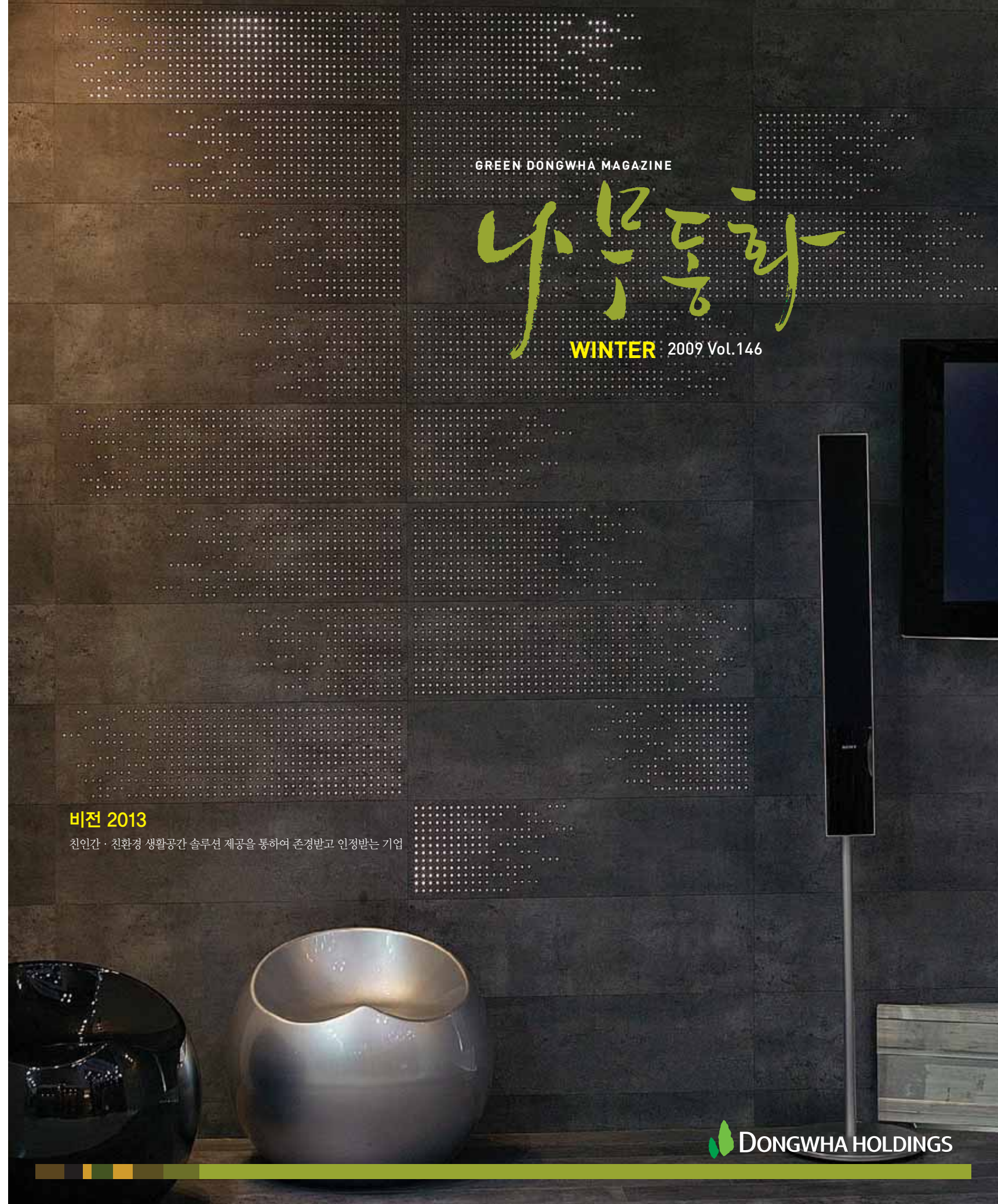
| 동화에코보드란? | 동화기업의 친환경 공법으로 가구 속 보드의 포름알데히드 방출을 최소화한 건강한 자재입니다



건강한 가구의 기준 -

동화 에코보드

www.dongwhainside.com



GREEN DONGWHA MAGAZINE

나목동화

WINTER 2009 Vol.146

비전 2013

친인간 · 친환경 생활공간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

DONGWHA HOLDINGS

Vision 2013

1948년 창업 이후 동화는 국내 목재산업의 선구자로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글로벌 목질자재 선도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친인간·친환경 생활 공간 솔루션 제공을 통하여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는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열정적인 도전을 시작하였다.

Since its founding in 1948, Dongwha has grown into a global manufacturer of wood-based materials and became a pioneer of Korea's wood-related industry. Dongwha members work hard to attain their new vision, which is to become the most respected and recognized company by providing living solutions for humans and nature.

Contents

WINTER
2009 Vol.146

계간·비매품

통 권 146호

발행인 승명호

발행일 2009년 11월 30일

발행처 동화홀딩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3 www.dongwha.co.kr

제 작 크리웍스 02-2628-5651~5

Vision 2013	02	Vision 2013	
	06	CEO's Message	
	08	Dongwha News	
	14	Special Theme	일하는 방법의 혁신, Smart Working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화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
	22	Business	대한민국 제1호 글로벌 오토마켓 '엠파크' 비상(飛上)
	24	Design Trend	동화자연마루가 곧 세계적인 트렌드!
	28	Dongwha in the News	
Dongwha Meets Nature	32	Eco - Dongwha	국내 최초 가구환경지킴이, 에코리안
	36	Green Report	생활공간 속 녹색혁명, 그린홈(Green Home)
Happy Workplace	40	Focus	행복한 가을 동화
	44	Club Story	일할 땀 실적을 뉘고, 휴일엔 대어를 낚는다
	48	Dongwha Family 1	"색다른 TV 야구 중계로 활력 짝짝 전해 드립니다!"
	50	Dongwha Family 2	뜨거운 열정과 꿈이 있는 '나는 동화인'
	52	Dongwha Family 3	선물하는 책 책 책, 감동은 두 배!
	56	Epilogue	

GREEN DONGWHA MAGAZINE

나무동화

Let's work hard with the determination to make a fresh start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노력합시다

2009년 한 해, 우리 동화가족 여러분들은 열정과 도전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하고 불투명하기만 했던 경영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모습은 감동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동화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동화홀딩스 가족 초청행사 기념사 중에서

Looking back on 2009, all of us at Dongwha had a dramatic year that was full of passion and challenges.
Amid gloomy and uncertain business conditions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you endured hard, difficult times and yielded successful results. Your endeavors have deeply moved me.
I hope that all of you at Dongwha will work hard with the determination to make a fresh start during the remainder of the year.
Let's do our best to achieve our goals.

Excerpts from a speech made at an event for families of Dongwha Holdings employees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동화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his past year

친애하는 동화가족 여러분!

신선한 바람결이 느껴지는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를 잔뜩 움츠리게 만들었던 글로벌 경제위기도 아직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나, 이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곳곳의 경제지표들이 희망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돌이켜 보면 2009년 한 해, 우리 동화 가족 여러분들은 열정과 도전으로 한 편의 드라마를 창출해 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캄캄하고 불투명하기만 했던 경영환경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공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모습은 감동적이고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 해 동안 회사의 성장과 자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과, 또한 회사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후원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봄 서곶 근린공원에서 가족 여러분들을 모시고 뜻 깊은 행사를 한 이후, 다시 한 번 좋은 자리를 만들고 초대하고 싶었으나, 경제 위기로 인한 긴축 경영과 기타 제반 어려운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지 못하여 그동안 마음 한 켠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인천 세계도시축전 행사와 더불어 우리 동화가족 여러분들을 다시 모시게 되어 무척이나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앞섭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 해 동안 성과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동화가족 여러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잠시나마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화의 터전이 되어 주신 인천광역시와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 보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일주일 가량 남은 인천 세계도시축전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행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동화가족 모두가 다시 한 번 새로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가 목표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7일 승명호



Dea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Autumn, the harvest season, has arrived, bringing with it a fresh breez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which wreaked havoc on the economy, is finally showing signs of abating, with major economic indices improving significantly. Looking back on 2009, all of us at Dongwha had a dramatic year that was full of passion and challenges. Amid gloomy and uncertain business conditions caused by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you endured hard, difficult times and yielded successful results. Your endeavors have deeply moved me.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tend my deepest appreciation to you and your families for your unsparing efforts and devotion toward the success of the company and your personal development.

I was hoping to organize a special event for you and your families, like the one we had in spring last year at a park in Seogot. But unfortunately, given the belt-tightening management brought on by the financial crisis, I was unable to realize my plan.

I am very excited and thankful that you and your families have gathered here today at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in Incheon.

I hope that this event will present you with an opportunity to share your joy and cheer on one another because you have all worked hard and made big contributions to the company this past year. I also hope that this gathering will lay a foundation for Dongwha and the City of Incheon to grow and succeed hand in hand. With the hope that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will end successfully,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organizers of the event for their efforts.

I hope that all of you at Dongwha will work hard with the determination to make a fresh start during the remainder of the year. Let's do our best to achieve our goals. Thank you.

October 17, 2009

CEO Seung Myung-ho, Dongwha Holdings

Dongwha Holdings



인천 세계도시축전 동화가족 행사 실시

지난 10월 1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세계도시축전 행사장에서 동화가족 행사가 개최되었다. 세계도시 축전 행사장 내 비류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동화가족 행사에는 동화 임직원 및 직계가족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승명호 부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아카펠라그룹 다이아의 공연, 비보이 공연, 나무자전거의 공연 등이 행사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경품 추첨과 점심 식사를 끝으로 공식 행사를 마친 후에는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세계도시축전 행사장을 관람하였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비상경영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동화인들이 남은 한 해 동안 다시 한 번 힘차게 파이팅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Dongwha Family Event at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Incheon

An event for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as held on October 17 at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Incheon with some

200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in attendance. The event began with a speech by Dongwha Holdings CEO Seung Myung-ho, followed by performances by the a cappella group DIA, the b-boy group Gambler Crew and the male duet Tree Bicycle. After a lottery game and lunch, the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enjoyed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Incheon. The event provided an opportunity for Dongwha employees to encourage one another renew their determination to work harder next year.



3분기 기술직 열린광장 실시

매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술직 열린광장이 지난 10월 13일부터 30일까지 6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이번 기술직 열린광장에서는 경영실적 및 경영일지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가절감 TFT 진행사항에 대한 토의와 건의 및 애로 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성희룡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Agora for Technicians

The quarterly Agora for technicians was

held over the course of six times throughout October 13 and 30. Participants discussed business results and agendas. The event also included a debate on the progress of cost reduction efforts and prevention of sexual harassment.

Dongwha Developer



M파크 모델 하우스 오픈

동화디벨로퍼는 지난 10월 1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퍼스트월드 주상복합 내 상가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강남사옥에 M파크 모델하우스를 개관하였다. M파크는 인천 서구 가좌동 보유 부지 1만 9011㎡ 부지에 연면적 9만 8755㎡,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현재 국내에 조성된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중 가장 큰 규모다. 2011년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약 120실 매매상가가 입주해 3600대 이상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다.

M-Park Model House Opens

Dongwha Developer unveiled a model house for the nation's largest auto dealing complex, M-Park, in Incheon and in Seoul on October 17. M-Park is being built on an area measuring 19,011㎡ in Gajwa-dong, Seo-gu in Incheon. Its total floor area stands at 98,755㎡. The complex will have nine stories and one basement floor. Its size is the largest in the nation and its construction is slated for completion in early 2011. The complex will house around 120 shops with more than 3,600 cars expected to be displayed simultaneously.

Daesung Wood



대성목재 PB1 공장 일생산 신기록 달성

대성목재 PB 공장이 10월 29일 일생산 최고기록(903㎥)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 5월 25일 일생산 872㎥ 기록달성을 31㎥ 초과한 기록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혁신활동을 통해 최종 목표로 하였던 900㎥를 초과한 놀라운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는 생산 현장에서 목표에 대한 강한 의지로 꾸준히 맘 흘려온 결과이며, 공장 모든 직원 뿐 아니라 시설지원, 품질관리, 화학 부문 및 동화 리소시즈 등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성과이다. 헌신의 노력으로 기록을 갱신하여 공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현장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Daesung Wood's PB 1 Plant Breaks Record in Daily Production

Daesung Wood's PB 1 plant set a new record in daily production on October 29 with the figure standing at 903㎥. That is 31㎥ more than the previous record of 872㎥ posted on May 25. The figure was all the more significant in that it surpassed the ultimate goal of 900㎥. The recent achievement was the result of relentless efforts to reach the plant's ultimate target. The hard work of the employees and cooperation on the part of Dongwha Resource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대성목재 체육행사 실시

대성목재는 지난 10월 용현동 소재 체육공원에서 간담회를 겸한 체육활동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번 체육활동은 기존의 공장 내에서 진행하던 간담회 형식에서 탈피하여 족구, 막걸리 빨리 마시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그간의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었다.



Daesung Wood Sports Event

Daesung Wood held a sports event at Yonghyeong-dong in October. Unlike similar events held before, which were centered on holding meetings, this event featured various programs, including foot volleyball and a makgeolli drinking contest.

Dongwha Enterprise

동화기업 에코보드 홈페이지 리뉴얼

동화에코보드는 지난 9월 1일 홈페이지(www.dongwhainside.co.kr)를 리뉴얼하였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동화에코보드 홈페이지에서는 새가구 증후군 추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生生가구 리뷰' 코너를 통해 소비자들은 가구 매장을 탐방하고 난 후 솔직하고 생생한 가구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가구 브랜드에



읽매이지 않고 모든 가구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새가구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유해 자재를 사용한 가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 새가구증후군 예방법 등도 함께 제공하여 가구 구매 시 필수 방문 코스로 고객들에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Renewal of Eco Board Website

Dongwha Eco Board renewed its website (www.dongwhainside.co.kr) on September 1. A campaign on preventing the sick furniture syndrome is under way on the new website. In the “Furniture Review” section, consumers can post feedback after visiting furniture stores and share information on choosing healthy furniture.

동화기업 노동조합 체육행사 실시

동화기업 노동조합은 지난 10월 서구 가좌 2동 소재 체육공원에서 3회에 걸쳐 체육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250명의 조합원이 참석하여 족구, 단체줄넘기, 단체윷놀이 시합 등을 하였으며 조합



원과 임원, 공장장 등 노사가 함께 그동안 업무 현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체육행사 이후 단합 자리에서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한 노사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 한 번 힘차게 파이팅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Labor Union Sports Event

Dongwha Enterprise’ labor union held a sports event in October in Gajwa-dong, Seo-gu in Incheon. About 250 union members took part in the event, which included foot volleyball, group jumprope and the traditional Korean game “yut”. It served as a valuable opportunity for all employees to relieve stress and enjoy the cool autumn breeze. After the event, participants held a separate gathering where they encouraged each other in these difficult times and pledged to work harder.



동화기업 에코리안 발대식 개최

동화기업은 지난 9월 11일, 인천 동화기업 대강당에서 에코리안 발대식을 진행하였다. 에코리안이란 환경을 의미하는 Eco와 한국인(Korean)의 합성어로 새가구증후군 추방 캠페인에 앞장서는 한국인을 의미한다.

약 200명의 에코리안들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새가구증후군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구 매장에 방문하여 친환경 자재에 대한 리뷰 및 전파를 하게 된다(www.dongwhainside.co.kr).

Launch of Ecoreans

Dongwha Enterprise held a launching ceremony for Ecoreans on September 11 at the Dongwha Enterprise auditorium in Incheon. “Ecorean” is a combination of the words “eco” and “Korean.” It refers to consumers who spearhead efforts to fight the sick furniture syndrome. Around 200 Ecoreans raised awareness of the sick furniture syndrome in September and October and posted their reviews of furniture stores and eco-friendly materials on Dongwha Eco Boards’ website (www.dongwhainside.co.kr).

Dongwha Resources



동화리소시즈 창립 4주년 기념 행사 개최

동화리소시즈는 지난 9월 1일 대성목재 대회의실에서 창립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장기 근속자 포상과 창립기념 인사말, 케이크 커팅식 등과 함께 다과 및 대화의 시간까지 이어진 이번 행사를 통해 원재료, 물류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혁신 마인드 고취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Dongwha Resources Marks 4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Dongwha Resources held a ceremony marking the four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at the Daesung Wood meeting room on September 1. The event included an awarding ceremony for long-service employees, a celebratory speech and cake-cutting. Employees vowed to boost the value of raw materials and distribution as well as to continue innovation to enhance competitiveness.



동화리소시즈 2009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참가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동화리소시즈는 폐목재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 효과와 파티클보드의 친환경성을 홍보하였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나무의 탄소 저장기능과 목재 재활용을 주제로 퀴즈 행사를 실시하여 목재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Dongwha Resources Participates in Forest Expo 2009

The Korea Wood Recycling Association took part in the Forest Expo 2009, which was organized by the Korea Forest Service on September 12-16. At the event, Dongwha Resources publicized ways to prevent global warming by effectively recycling waste wood and promoted Dongwha’s particle boards as an eco-friendly material. The event also featured a quiz for ordinary citizens on trees’ ability to store carbon and wood recycling.



동화리소시즈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홍보 전시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대한건설협회와 건설환경협회가 주최하는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홍보 전시를 진행하였다. 100대 건설사 환경 담당자 약 500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 동화리소시즈는 건설폐목재 재활용품을 전시하였으며 폐목재 재활용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건설 폐목재 적법 처리에 대한 홍보 등을 진행하였다.

Construction Environment Management Expo

The Korea Wood Recycling Association took part in an exposition on the outstanding examples of construction environment management. The event was organized by the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and the Society for Environmental Construction. Some 500 representatives of the nation’s top construction environment management firms attended the event. Dongwha Resources put on display products made from recycled wood. It also distributed materials on wood recycling and taught visitors how to recycle wood.

Dongwha Nature Flooring



동화자연마루 수도권 대리점 사장단 회의 개최

동화자연마루는 지난 7월, 동부와 서부 지역의 대리점 사장단 회의에 이어 9월 2일, 수도권 대리점 사장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동화자연마루의 전략 및 유통 전개방향에 대한 공유와 마루 외 타 제품들을 소개하였으며 본사와 대리점이 파트너로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시간이 되었다.

Meeting for Chiefs of Dongwha Nature Flooring Branches

Dongwha Nature Flooring held a meeting of the chiefs of its branch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n September 2. Participants shared views on Dongwha Nature Flooring's strategies and distribution plans and introduced new

products. The event served as a venue of communication between Dongwha Nature Flooring's headquarters and its branches.



동화자연마루 브랜드 홈페이지 오픈

동화자연마루는 지난 9월 4일 기존의 기업 중심 사이트를 탈피하여 고객 중심적인 브랜드 홈페이지를 선보였다. 새롭게 선보인 동화자연마루 홈페이지는 동화자연마루 고유의 친환경, 인간중심의 기업 이념을 반영할 수 있는 컬러 및 디자인을 통해 친환경 브랜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공간별, 평수별, 스타일별로 다양한 시공 사례를 제 공함으로써 인테리어 설계 시 동화자연마루를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인테리어 매거진 및 코디 제안을 통해 트렌디한 인테리어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 상담하기 코너를 통해서 고객들의 1:1 인테리어 상담도 가능하다.

Dongwha Nature Flooring Launches Brand Website

Dongwha Nature Flooring opened a website of its brand on September 4. The site introduces Dongwha Nature Flooring's

human- and nature-friendly products and promotes its eco-friendly image. It also introduces examples of floor installment by space and style to help customers decorate their homes and offers information on the latest trends as well as one-on-one counseling with designers.

Overseas



Malaysia's DGI Management Trainees OJT

Dongwha Malaysia held an event in which management trainees announced the results of their job training on November 10. The management trainees, who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and Hangyang University, received on-the-job-training during the first six months after they joined Dongwha Malaysia. The program selected a mentor for each management trainee to help the trainees better adjust to an organization. After

announcing the results of their training, the trainees became the company's permanent staff. CEO Kim Jong-su attached badges to the trainees' suits, while Director Chae Kwang-byeong gave out flowers.

말레이시아 DGI Management Trainees OJT 종료 수행 과제 발표회

동화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11월 10일 Management Trainees의 수행 과제 발표회가 있었다.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를 졸업한 Management Trainees들은 동화 말레이시아에 입사한 후 6개월 면수습 기간 동안에 On Job Training(OJT)을 진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각 Management Trainees에게 멘토를 선정하여 동화에 대한 조직 적응력 강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 및 직무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발표회는 정직원이 되는 것을 축하하는 뜻으로 김종수 대표가 Management Trainees에게 뺏지를 달아주고 채광병 부장이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마쳤다.

DFB Donated Computers to Police Station

DFB Merbok donated two used desktop computers to the Merbok Police Station on October 14 at the station's request. The purpose of the donation was to enhance the work efficiency of Merbok police and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DFB Merbok, Merbok 경찰서에 컴퓨터 기증

DFB Merbok은 지난 10월 14일 Merbok 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2대의 중고 데스크톱 컴퓨터를 Merbok 경찰서에 기증했다. 이번 컴퓨터 기증은 단지 기증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Merbok 경찰의 업무 효율을 높여 전 Merbok 지역에 유익을 가져오기 위해 시행되었다.



DPN Yields Outstanding Performance in Q3

The Dongwha Patinna plant has posted stellar results over the past several

months, with the results for the third quarter of the year being especially impressive. The feat is all the more significant in these challenging times. Employees worked hard and cooperated closely to maximize daily production amid the financial downturn. Asset Engineer John McLaren worked with the Operations Department to resolve sensitive problems and succeeded in settling a problem involving press chains.

DPN, 경제 불황 중 거둔 훌륭한 성과

동화 파티나 공장의 최근 생산 기록을 살펴보면, 지난 수 개월 동안 가동 시간 및 작업량이 우수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분기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힘든 경제상황에서 이런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황으로 인해 매일의 생산 활동에 더 많은 노력이 소요되었으며, 각 부서들은 긴밀히 협조하고 서로를 지원하였다. 엔지니어 John McLaren는 최근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부서 직원들과 협력하여 프레스 체인과 관련된 주요 문제를 해결하였다.

글
서강석 (동화홀딩스 경영혁신팀 차장)
By Suh Kang-seok, Deputy Senior Manager,
Business Innovation Team, Dongwha Holdings

일하는 방법의 혁신, Smart Working

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 결과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 잎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도끼날이 무디어져 있는데, 날을 새로 갈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만 한다면 누구나 그를 비웃을 테지만, 막상 우리 자신도 방법을 바꾸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처럼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관점과 방법을 스마트하게 바꾸어갈 때 일도 결과도 즐거워집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갈 때는 혼자 가는 것에 비해 무척 느려집니다. 혼자 어디론가 훌쩍 떠나는 여행은 언제든 문을 나설 수 있지만, 가족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아무리 잘 준비해도 출발 당일에 늘 계획보다 더더지게 마련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존 맥스웰이 말하듯 '1은 위대함을 달성하기엔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도와 공동의 목표를 함께 달성해 가는 과정은 성장의 기쁨과 성과를 공유하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조직 생활이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경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성과가 안 나는 경우, 서로 남 탓하며 협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Business'를 하는 것이 아니라 'Busyness'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방법으로 일하면서, 결과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 잎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무꾼이 도끼날이 무디어져 있는데, 날을 새로 갈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만 한다면 누구나 그를 비웃을 테지만, 막상 우리 자신도 방법을 바꾸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처럼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관점과 방법을 스마트하게 바꾸어갈 때 일도 결과도 즐거워집니다. 스마트하게 일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옳은 일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의 기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경쟁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인가?를

자문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지 점검해보고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방법도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것이 됩니다. 누군가는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도요타가 세계 최강자였던 GM을 추월할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그 유명한 도요타의 카이젠, 지속적인 개선 활동입니다. 도요타의 사례에서 보듯, 내가 하지 않는 일을 남들이 할 때 우리는 경쟁에 뒤처지고,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방법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가? 일하는 방법을 남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을 모색한다면 분명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먼 길을 가려고 할 때, 처음 가는 길은 항상 멀게만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함께 하는 사람 누구나 공유하고 있다면, 그 여정은 무척 즐겁고 시간가는 줄 모를 것입니다.

조직의 성과는 방향과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방향은 올바르게만 속도가 느리면 경쟁에 뒤처집니다. 방향은 엉뚱한데 속도가 빠르면 빠른 속도로 망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일해야만 모두가 바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바쁨을 핑계대지 않고, 우리가 올바른 방향인지, 잘 가고 있는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가야 할 길을 다시 헤아려 볼 때 우리의 미래는 오늘과 달라질 것입니다. 🌱

■ 다음 호에는 '일하는 방법을 혁신하는 노하우'에 대해 연재할 예정입니다.

Working Smart

There's an African proverb that goes,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and if you want to go far, go with company." However, traveling with someone else tends to slow things down. When you want to go somewhere by yourself, you can just step out of your house. But if you are to go on a family trip, all sorts of preparations inevitably slow down plans on the day of departure.

People working together for the same company collaborate to achieve things they cannot achieve on their own. As John Maxwell said, "One is too small a number to achieve greatness." The process of different people helping one another to achieve the same goal also translates into the joy of sharing happiness resulting from growth and results. However, life in an organization sometimes does not meet one's expectations. There are times when people are unable to focus on their duties and produce results despite working hard, or fail to cooperate and rush to blame others for their mistakes. This is called "busyness" rather than "business." What can be done to resolve such problems?

Expecting different results while applying the same methods is like trying to make a dead tree sprout leaves. Everybody would laugh at a woodman if he diligently cut trees with his axe worn out. Maybe we are doing the same thing by refusing to change the way we work and focus only on working hard to obtain different results. By smartly changing our perspective and methods, we can ultimately enjoy our work. There are two ways to work smart.

One is to do the right kind of work.

A thing that was right in the past can become wrong with time. Customers' demands change and so does the environment for competition. We need to ask ourselves if the kind of work we focused on in the past is still useful. In other words, we need to review whether we are doing the right kind of work and find the proper kind of work that is required at the present time.

Working smart is to work in the right way.

Your way of doing things becomes outdated someday. That is because somebody continuously finds a more effective way to work. The reason Toyota was able to outperform the world's number one automaker, GM, was because of Toyota's continuous efforts toward "kaizen," or improvement. Toyota's case clearly demonstrates that we will lag behind in competition and will be shunned by

customers when others succeed in doing something we failed to do.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Am I working in a way that is still competitive? Could there be a way to work better than the others? You will be able to become a better worker by studying these two questions and seeking to continuously improve your working method.

When a group embarks on a long trip, at first the road ahead seems endless. But once you know where you are headed and share with others your ideas as to how to get there, the trip will become a pleasure.

An organization's results vary from direction and speed. An organization with the right direction but slow speed tends to fall behind in competition while an organization that is fast in speed but has the wrong direction would fail rapidly. Only when an organization works fast in the right direction can it achieve the results sought by all members.

Instead of blaming your busy schedule, look back and see whether you ar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Once you figure out your direction, your future will be brighter. 🌱

■ In the spring edition we will introduce ways to innovate working methods.





권면우 대리
(동화자연마루
고객서비스팀)



이준호 대리
(동화자연마루
물류지원팀)



박한수 대리
(대성목재
전략구매팀)

올 한 해, 동화는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조직이 변화하려면 먼저 스스로 변화를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화의 변화를 앞장서서 이끌고 혁신을 실천하는 권면우 대리(동화자연마루 고객 서비스팀), 이준호 대리(동화자연마루 물류지원팀), 박한수 대리(대성목재 전략구매팀), 김화수 기술사원(동화기업 MDF1 공장), 김경상 기술주임(대성PB공장) 등과 지난 1년간 땀흘린 혁신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혁신은 사고의 확장”이라고 정의하는 권면우 대리는 동화자연마루의 직배직시공 업무를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그는 시공사를 선정해 OEM으로 운영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본사에서 직접 시공사를 관리하고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것으로 대전환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을 시작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SM(서비스마스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저비용 운영 체계의 기틀을 확립했다.

한편 이준호 대리는 물류 업무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개선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올해 1분기에 ‘토털 물류 코스트 절감’이라는 주제로 운송 체계를 개선한 데 이어 현재 ‘부자재 프로세스 운영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마치 컴퓨터 운영체제를 효율화하기 위해 조각모음을 실행하듯, 물류 지원 업무 자체의 불량 섹터를 발견 즉시 제거하면서 우량 섹터를 하나로 모아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리는 이를 위해 거점마다 배송 체계가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비용을 감축하고 창고를 줄여 재고량을 감축하는 한편 팔레트를 50% 이상 회수하여 매월 500~600만 원 정도를 절감했다. 또한 보다 넓은 시각으로 문제점에 접근하고 해결 방법을 터득하는 노하우와 자신감 등 소중한 무형의 자산도 획득했다.

아울러 화학 재료 구매담당인 박한수 대리는 보드제품의 원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학 자재의 원가경쟁력 확보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화학 자재가 유가, 환율 등 대외적 여건에 종속되어 자유자재로 원가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생산, 연구, 품질, 구매 등 각 부문장간의 정기 교류회를 마련해 공통 목표에 대한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협의체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점 해결에 출선수범하는 한편 경영진의 신속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도출해 원가절감 목표를 능가하는 재무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MDF1공장 김화수 기술사원과 대성PB공장 김경상 기술주임은 꾸준한 현장 개선 활동으로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김화수 사원은 소그룹활동의 리더로서 ‘프레스 테스트타임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전 구성원들과 한 호흡으로 개선 활동을 해나갔다. 처음에는 업무 시간 이후에도 개선 활동을 하며 의견 일치를 이루려니 어려움이 컸지만 그의 열성과 의지에 힘입어 한마음으로 개선 활동에 동참해 멀티 타입의 프레스 하강 속도를 6초나 단축하였다. 이같은 성과로 TFT 발표 때 우수 소그룹으로 선정됨으로써 더욱 개선 의지에 불이 붙어 현재 표충밀도를 올리는 스프레이 장치 개선 활동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경상 주임은 대성PB공장 프레스파트 오퍼레이터로서 화학 원재료 투입량을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트렌드라는 설비를 도입하고 이를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연간 7억 원 정도의 원가를 절감했다. “혁신은 새로운 발견”이라는 그는 구성원들과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현장 개선 활동을 추진해 이의 창출을 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변화나 혁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의식을 떨치고 끊임없이 개선 사항을 발굴해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불붙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이들의 뜨거운 의지가 있기에 동화의 새로운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Driving Force of Dongwha Innovation

This year, Dongwha has laid a foundation for a new leap with relentless innovation efforts. In order for an organization to change, cooperation from each individual is imperative. We met with some of Dongwha employees to learn about their contribution to the company’s innovation efforts over the past one year.



김화수 기술사원
(동화기업
MDF1공장)



김경상 기술주임
(대성PB공장)

Kwon Myoun-woo, Assistant Manager, Customers Service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Kwon Myoun-woo says innovation is the act of expanding one’s thoughts. By taking a new approach to direct distribution and installment, he succeeded in enhancing work efficiency. Instead of using the existing method of selecting a builder and outsourcing production, he tried to manage builders directly at the head office and personally oversaw warehouses. Thanks to his new approach, problems were detected faster. Moreover, training for service masters helped in cost-cutting.

Lee Jun-ho, Assistant Manager, Logistics Support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Lee Jun-ho unveiled his all-inclusive logistics cost reduction plan to overhaul the shipping system in the first quarter of the year. His plan centered on improving logistics operations systematically to cut unnecessary costs. He is currently working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subsidiary materials processing. His current work centers on unearthing problems in logistics support and solving them immediately while also integrating them into best-performing sectors and boosting their effectiveness. By integrating the delivery systems of all bases, he cut costs and reduced inventories.

Park Han-soo, Assistant Manager, Strategic Procurement, Daesung Wood Park Han-soo, who is in charge of purchasing chemical materials, focused his efforts on stabilizing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on securing the cost competitiveness of chemical materials, which account for a significant part of the prime cost of board products. To better control the prices of chemical materials, which rely heavily on global oil prices and foreign exchange rates, he has been holding regular meetings since last year so that employees can exchange opinions on production, research, quality and purchase and come up with solutions. As a result, employees began to take the initiative and search for solutions while also demanding swift and right decisions from management.

Kim Hwa-su, Technician, MDF 1 Plant, Dongwha Enterprise / Kim Kyeong-sang, Technical Staff, Daesung PB Plant Kim Hwa-su and Kim Kyeong-sang successfully “killed two birds with one stone” by enhancing quality and cutting costs through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worksites. As a leader of a small group, Kim Hwa-su carried out productivity improvement activities with his group members under a project



named, “Enhancing Productivity by Reducing Time Losses.” Thanks to their passion and determination, they were able to reduce the descending speed of the multi-type press by six seconds. The group was selected as the most outstanding small group at the TFT announcement. Meanwhile, Kim Kyeong-sang, who operates press parts at Daesung Wood’s PB Plant, introduced a system called “Monitoring Trend” to reduce the input of chemical raw materials. By analyzing and solving problems, he successfully reduced annual costs by about 700 million won.

Change and innovation are not easily realized. Change and innovation can materialize when people stop being complacent and try to find things that can be improved. Dongwha will continue to take on new challenges thanks to the strong determination of its employees who refuse to fall into complacency and who spare no efforts to grow and improve. 🌱



대한민국 제1호 글로벌 오토마켓 ‘엠파크’ 비상(飛上)

The nation's first global auto market, M-Park, takes flight



자동차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 동화디벨로퍼는 지난 10월 17일, 국내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인천 동화 엠파크(M-PARK)’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 이 날 오프닝은 동화홀딩스 송명호 부회장, 동화디벨로퍼 정대원 상무, 장기완 고문 등 동화 계열사 대표와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더샵퍼스트월드 주상복합 내 상가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는 엠파크의 건물 축소 모형과 내부 구조 및 지역현황, 시장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다.

신개념 자동차 거래의 장을 열다 인천 서구 가좌동 보유부지에 개발하는 엠파크는 1만 9011㎡ 부지에 연면적 9만 8755㎡,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국내에 조성된 자동차매매복합단지 중 최대 규모다. 2011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엠파크에는 약 120개의 매매 상가가 입주해 총 3600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에 전시할 수 있으며, 600여 대의 고객주차도 가능하다. 또한, 6600㎡ 규모의 종합정비단지와 인천 최초의 경매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엠파크는 신차, 중고차, 수입차 매매는 물론 자동차 경매와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선진 통합시스템을 갖춘 세계 수준의 자동차매매복합단지다. 이제 자동차 수출입관문인 인천에서 자동차 거래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게 됐다. 11월부터 일반 분양에 나선 엠파크는 2011년 초 완공 예정이다. 🌱

문의 송도 1588-4089, 논현 1588-8965

A new paradigm for car dealership has been set. Dongwha Developer unveiled a model house for the nation's largest auto dealing complex, Incheon Dongwha M-Park, on October 17. Around 50 Dongwha representatives attended the opening ceremony, including Dongwha Holdings CEO Seung Myung-ho, Dongwha Developer director Chung Dae-won and advisor Chang Ki-wan.

A new chapter has been opened in the history of auto dealership. M-Park will be constructed on an area measuring 19,011m² in Gajwa-dong, Seo-gu, Incheon. Its total floor area stands at 98,755m². The complex will have nine stories and one underground floor. Its size is the largest in the nation and its construction is slated for completion in the first half of 2011. M-Park is a top auto dealing complex that has an advanced integrated system allowing to sell and buy new, second-hand and imported cars, as well as auction and repair cars. M-Park sets a new paradigm for car dealership in Incheon, which is a gateway for exporting and importing cars. 🌱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1588-4089 (Songdo) or 1588-8965 (Nonhyun).



Vision 2013 Design Trend

글
김희정 (장식신문 기자)
By Kim Hee-jung [Decotimes Reporter]



동화자연마루가 곧 세계적인 트렌드!

Dongwha Nature Flooring Sets Global Trends

빠르게 변해가는 인테리어 트렌드는 자재업체들의 제품개발까지 가속화시키고 있다.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 주지 않으면 바로 퇴행하는 인테리어 시장에서 업체들은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대중성과 동시에 유행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남과 다른 인테리어를 원하는 소비자들까지 만족시키기 위해 동화자연마루가 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클릭 - 시크히코리
차분한 패턴과 컬러의 동화
자연마루가 휴식할 수 있고
감성적인 공간을 선사해 주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나무 특유의 부드러움은 사람
들 감성까지도 자극해 온화
하게 해준다.

간결하면서도 편안한 디자인 선호

최근 인테리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역설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녹록치 않은 사회적 영향으로 인해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추구하고 있으며 마루 역시 경제, 문화, 라이프 스타일 등의 요인에 따라 밝고 넓어 보이는 패턴 중심의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한 제품이 유행하고 있다. 제품 규격은 고정관념을 탈피해 폭과 길이 사이즈가 다양해짐으로써 내추럴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마루판의 규격의 다양화 만큼이나 표면 질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인위적인 느낌의 도장보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소재를 원한다. 천연 원목나무의 질감을 간직한 패턴과 컬러, 세월의 흔적을 표현한 빈티지 등 광택이 나는 소재보다는 실제 원목에 가까운 섬세한 표면 질감을 표현한 스타일이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지양하고 안정적인 형태의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대중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다. 밝은 톤의 안정적인 패턴이 인기를 끌자 수중 가운데 오크 제품이 화이트와 옐로 등의 톤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 원목의 감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오크는 나뭇결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낮은 광도의 표면처리를 하고 있다. 동화자연마루 '크로젠'은 한국의 주거문화와 한국인의 감성이 담긴 제품으로 세계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사람과 자연을 이어줌으로써 한국의 편안한 감성을 전파시키고 있다. 또한 고전적인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섬세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인다.

이와 함께 합리적이면서 실용적인 디자인도 지속적으로 환영받고 있는데 '플로렌'의 경우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달리 폭을 156mm로 줄임으로써 인테리어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선호되고 있다. 내추럴한 표면 질감 역시 유럽풍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 분위기 연출에 효과적이다.

나무로 따뜻한 겨울나기 _ 동화자연마루와 디자인월 100% 활용

올해 마루 트렌드에 나타난 변화는 광택은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한 패턴들이 주류를 이루는 동시에 차분한 화이트 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세월의 흔적을 담은 듯한 컬러와 천연 목재의 느낌을 간직한 패턴, 편안하고 안정된 색감이 공간을 한결 아늑하고 화사하게 바꾸어 준다. 차분한 패턴과 컬러의 동화자연마루가 휴식할 수 있고 감성적인 공간을 선사해 주며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친근한 나뭇결이 실내 정원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나무 특유의 부드러움은 사람들 감성까지도 자극해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주기 때문에 선호하는 자재이다. 때문에 나무 소재의 인테리어 소품과 가구들은 겨울철에 특히 안성맞춤인데, 너무 밝은 톤은 자칫 추위 보일 수 있고 짙은 톤은 차분함을 지나쳐 우울해보일 수 있으니 색상 선택에 주의를 요한다. 여기에 모직 패브릭이나 러그, 카펫 등을 활용하면 공간을 더욱 고급스럽고 아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바닥재와 함께 벽장재 '디자인월'은 나무질감이 주는 따뜻함을 벽마감재에 부여하여 주거공간 뿐 아니라 상업 공간까지도 부드럽게 해준다. 목재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패턴은 물론 고급 모양지와 표면 엠보 효과를 이용해 대리석, 타일과도 같은 여러 가지 질감과 패턴을 구현하고 있다. 여기에 채광과 실내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식물을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추가하면 어떨까? 창으로 들어오는 자연 빛이 나뭇결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곳곳에 배치한 식물은 마루, 벽장재와 어울려 싱그러운 겨울을 보내게 할 것이다. 🌿

Dongwha Nature Flooring Sets Global Trends

The fast-changing interior design trends are prompting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Firms are divided over the modern and the futuristic in a market where businesses regress if they fail to come up with innovative products. Dongwha Nature Flooring has been leading global trends to meet the demands of consumers who prefer unique and out of the ordinary designs.

Simple Yet Comfortable Designs

Currently, interior designs that reinterpre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an ironical way are widely popular. Amid gloomy economic conditions, consumers want comfortable spaces where they can relax. In line with this trend, floors that have maximized natural features and make the interior space look more spacious have become highly popular.

The inclination toward a natural style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more consumers prefer products of various sizes instead of standard sizes. Interest in the texture of the floor surface has been on the rise in lin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flooring standards. Consumers increasingly turn to materials that offer a natural look instead of designs that have an artificial texture. Instead of glossy materials, styles that feature real-wood texture are gaining popularity.

A growing number of consumers are going for drastic changes and seeking products that are popular yet sophisticated and offer stability. With bright-tone, stable patterns drawing popularity, a large number of oak products in white or yellow tones are released on the market, with oak having the strongest feel of solid wood.

Dongwha Nature Flooring’s “Crozen” has drawn the global spotlight because it represents Korean housing culture and Koreans’ sensitivity. Through the harmony of humans and nature, Crozen spreads Korea’s comfortable sensitivity across the world. By reinterpreting traditional ambience into modern one, the Crozen features a delicate and sophisticated design.

Meanwhile, practical flooring designs remain consumers’ favorite. By reducing the width of the Flollen products by 156 millimeters compared to the products distributed domestically, Dongwha sought to meet the demands of consumer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natural feel of the Flollen is effective in creating an elegant and refined atmosphere.

A Warm Winter with Dongwha Nature Flooring and Dizainwall

Flooring trends this year center on patterns with a natural feel and less luster. Calm, white-tone products are also the mainstream. Patterns that have a weathered feel and comfortable colors create a cozy and bright decor.



Dongwha Nature Flooring’s composed patterns and colors create a garden-like atmosphere. Consumers prefer such patterns because their softness is very relaxing and gentle. As a result, decorating materials and furniture made of wood are all the more popular during the winter season. Caution is required when selecting the color of wood products, as excessively bright tones create a cold mood, while darker tones look gloomy.

Use wool fabric, rugs or carpets to create a more refined and cozy decor. The Dongwha Dizainwall adds softness to both residential and commercial spaces, thanks to the warm feel of wood in wall finishing panels. A few plants can also add warmth and naturalness to the decor. 🌿

플로렌 - 까사화이트오크
미루폭을 156mm로 줄임으로써
원목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살려 유럽풍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공간 연출에 효과적
이다.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와 신뢰를 제공하고자 많은 바 최선을 다하며 미래의 비전을 위해 힘써 온 동화의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재조명해 보았다.

東亞日報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B03면 경제 금융



전자재 업계에도 '꼬리표'에 다양한 제품 정보를 담아 소비자와 소통을 나누는 '꼬리표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 동화기업은 친환경 자재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제품에 붙였다(왼쪽). 에비스는 접착제나 시너를 쓰지 않고 물로 만든 도료 '워터본'을 사용한 제품에 워터본 마크를 새겨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사진 제공 동화기업·에비스

가구살때 '꼬리표' 확인 꼭!

전자재에도 친환경 등급표시 확산

가구 속자재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PB)는 버린 나무 자재들을 재활용에 만든다. 나무 가루를 못져 나무 판을 만들다 보니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된다. 새 가구를 집에 들여 놓았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접착제다. 접착제 성분과 양에 따라 새집증후군 등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다.

파티클보드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친환경적인 E0부터 가장 저급인 E2로 등급이 나뉜다. 전자재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가구의 70%가 저급 자재인 E2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파티클보드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전문기업인 동화기업은 최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재 브랜드 '동화이코보드'를 선보이면서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제'를 시작했다.

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볼 수 있던 이른바 '꼬리표 경제(tag economy)'가 전자재 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동화기업은 삼성물산이 짓는 래미안아파트에 친환경 자재인 E0를 납품하고 있다. 아파트 인테리어 자재로 E0만을 쓰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동화기업과 삼성물산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파티클보드에 녹색 색소를 넣은 '그린보드'를 만들었다. 싱크대나 신발장 문을 열면 선반으로 쓰인 자재의 색상을 보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방가구 전문회사인 에비스도 접착제나 시너를 쓰지 않고 물로 만든 수성도료 '워터본'으로 사강한 제품에는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붙여 알리고 있다.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기준은 0.4mg/m³h. 워터본은 이 기준보다 훨씬 낮은 0.036mg/m³h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붙이는 것 외에도 제품 자체에 워터본 마크를 새겨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새 가구 증후군 예방법

디자인만 보지 말고 가구 속 재질도 확인하세요



최근 새 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새 가구 증후군' 예방법이 화제가 되고 있다. 디자인만 보지 말고 가구 속 재질도 확인하라는 조언이 나오면서 친환경 자재 등급표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동화기업은 친환경 자재 브랜드를 선보이면서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제품에 붙였다(왼쪽). 에비스는 접착제나 시너를 쓰지 않고 물로 만든 도료 '워터본'을 사용한 제품에 워터본 마크를 새겨 소비자에게 알리고 있다. 사진 제공 동화기업·에비스

가구살때 '꼬리표' 확인 꼭!

전자재에도 친환경 등급표시 확산

가구 속자재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PB)는 버린 나무 자재들을 재활용에 만든다. 나무 가루를 못져 나무 판을 만들다 보니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된다. 새 가구를 집에 들여 놓았을 때 코를 찌르는 냄새의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접착제다. 접착제 성분과 양에 따라 새집증후군 등 환경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다.

파티클보드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친환경적인 E0부터 가장 저급인 E2로 등급이 나뉜다. 전자재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가구의 70%가 저급 자재인 E2 등급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파티클보드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목재전문기업인 동화기업은 최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재 브랜드 '동화이코보드'를 선보이면서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제'를 시작했다.

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에서 볼 수 있던 이른바 '꼬리표 경제(tag economy)'가 전자재 업계로도 확산되고 있다.

동화기업은 삼성물산이 짓는 래미안아파트에 친환경 자재인 E0를 납품하고 있다. 아파트 인테리어 자재로 E0만을 쓰는 건설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동화기업과 삼성물산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파티클보드에 녹색 색소를 넣은 '그린보드'를 만들었다. 싱크대나 신발장 문을 열면 선반으로 쓰인 자재의 색상을 보고 소비자들이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방가구 전문회사인 에비스도 접착제나 시너를 쓰지 않고 물로 만든 수성도료 '워터본'으로 사강한 제품에는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붙여 알리고 있다. 환경부에서 인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기준은 0.4mg/m³h. 워터본은 이 기준보다 훨씬 낮은 0.036mg/m³h로 자연 상태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 이 회사의 설명이다. 친환경 자재등급표를 붙이는 것 외에도 제품 자체에 워터본 마크를 새겨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한국일보

2009년 10월 10일 토요일 A13면 경제



김종수 동화기업 대표 "BSC 아태 회장"서 경영관리 최우수 기업상

"회사가 하나 되려면 전직원이 전략 공유해야"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뿐 아니라 다른 팀 업무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 회사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직원들도 주체적으로 일을 찾아 업무 성과가 몇 배로 커지는 겁니다." 김종수 동화기업 대표는 5일 인천 도화사에서 자카르타에서 열린 '2009년 BSC(Balanced Scorecard) 경영성과대회'에서 '세계 경영관리 최우수 기업상'을 받았다. 대표 자택으로 왔으니 자회사들을 댈 댔도 한데 어는 병행했다. "회사의 전략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김 대표는 이날 수상에 대해 "BSC를 통해 경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전 직원이 회사의 전략을 공유하고,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전략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김 대표는 이날 수상에 대해 "BSC를 통해 경영관리를 체계화하고, 전 직원이 회사의 전략을 공유하고, 업무 성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전략을 전 직원이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매일경제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B07면 기타



대리석 느낌 그대로... 업계 최초 목질 벽장재

동화자연마루

동화자연마루는 대리석 느낌 그대로 대리석 느낌 그대로... 업계 최초 목질 벽장재

서울경제 (2009. 10. 7)

서울경제

2009년 10월 07일 수요일 A29면 사회



인천 서구, 자동차 시장 메카로 뜬다

중고차 수출 배후단지·클러스터·매대복합단지등 조성 추진

인천 서구는 자동차 시장 메카로 뜬다. 중고차 수출 배후단지, 클러스터, 매대복합단지등 조성 추진

한국경제

2009년 09월 23일 수요일 C07면 기타



'새가구 증후군' 초래 물질 최소화한 '친환경' 자재

동화기업 '에코보드'

친환경 자재 '에코보드'는 친환경 자재로 만든다. 친환경 자재로 만든다.

한국경제 (2009. 9. 23)

매일경제 (2009. 10. 29)

스타일조선 (2009. 10. 6)

동아일보 (2009. 11. 10)

동화, 에코와 만나다

그린홈이란 '그린(녹색)'이란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 친환경주택을 말한다. 냉방, 난방, 조명 등을 사용할 때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한 주택이면서 각종 건축자재도 최대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짓는 주거공간을 일컫는 용어다. 한마디로 그린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거나 최소화한 주택인 셈이다.

Green Report _ 생활공간 속 녹색혁명, 그린홈(Green Home) 中

Dongwha Meets Nature

Green homes refer to eco-friendly houses. They use minimum fossil fuels in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lighting. They are built with the most eco-friendly materials and pose minimum harm to the environment.

Green Report _ Green Home - Green Revolution within Living Space



국내 최초 가구환경지킴이, 에코리안

Ecoreans, Crusaders
for Eco-Friendly Furniture



제1기 에코리안 신수재, 신현정, 김민정 주부 (좌측부터)

지난 9월, 동화기업 본사에서 국내 최초 가구환경지킴이 200여 명의 에코리안이 발대식을 가졌다. ‘환경(Eco)’과 ‘한국인(Korean)’의 합성어인 ‘에코리안(Ecorean)’은 새가구증후군 퇴치 캠페인에 앞장서는 신개념의 파워주부들이다. 에코리안은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새가구증후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각오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새가구증후군을 줄여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결성되었다. 이들은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새가구증후군의 심각성을 알리며, 주요 가구 매장을 방문해 친환경 가구자재의 정보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새가구증후군은 가라 “하나, 나는 가구를 구입할 때 친환경 자재등급 마크와 동화에코마크를 꼭 확인하여 건강한 가구를 선택하겠습니다! 둘, 나는 새가구증후군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5천만 모두 건강한 가구를 선택하도록 돕겠습니다!” 1기 에코리안은 이 선서를 지키기 위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열심히 뛰어 다닌다. 우선,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새가구증후군의 심각성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파하고, 가구매장을 탐방한 뒤 생생한 가구매장 후기를 동화에코보드 홈페이지(www.dongwhainside.co.kr)에 올리는 등 친환경 프로슈머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요즘 동화에코보드 홈페이지에는 ‘새가구증후군 추방 캠페인에 동참하기’ 이벤트가 한창이다. 새가구증후군의 주범, 포름알데히드의 유해성을 동영상으로 직접 확인한 뒤 동참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스스로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의 주역 1기 에코리안은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에게 캠페인의 취지와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하도록 권면한다. “아기 가구를 확신도 없이 무심코 샀는데 아이에게 미안하네요. 역시 엄마가 많이 알아야 합니다.”(주진혜 씨), “가족의 건강 뿐 아니라, 대한민국 자연환경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제품을 선택하겠습니다.”(이승주 씨), “새가구증후군의 위험성에 대해 만나는 사람마다 알려줍니다. 음식만 유기농을 챙길 게 아니라 우리 손길이 닿는 가구도 친환경 자재 등급마크와 동화에코마크를 꼭 확인하겠습니다.”(이윤희 씨) 등 매일 새로운 동참 메시지가 올라오고 있다.

나는야 친환경가구 전도사 1기 에코리안은 무작위로 인근 가구매장이나 모텔하우스 등을 방문해 친환경 가구 자재 사용 현황과 매장 정보 등이 포함된 탐방후기를 홈페이지 ‘생생가구리뷰’와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다. “자녀에게 사 줄 침대를 보러 갔는데 에코마크를 모르는 판매원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구만 큼은 에코마크와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가 꼭 의무화되었

으면 좋겠습니다.”(김지연 씨) “백화점 내 가구매장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 말고는 아울렛 등과 다를 것이 없어 실망스러웠습니다. 좋은 캠페인을 통해 가구를 선택하는 기준을 바로 잡아 주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준 동화에코보드 측에 깊이 감사합니다.”(김혜란 씨) 가구 구매와 선택 노하우, 각 브랜드 매장의 특징점과 팁까지 얻을 수 있는 이 공간은 가구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친환경 자재와 가구 구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익한 통로가 된다. 그리고 각 가구매장 직원들의 서비스, 제품 평가와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한다.

새집증후군이 아니라 새가구증후군이었네 “결혼생활 5년 동안 3번 이사를 했는데 모두 새 아파트였어요. 보일러를 돌리고, 문도 열어보고, 참속에 양파까지 놓아봤지만 눈이 따갑고 두통에 소화불량까지 말도 못했어요.” 김민정 씨는 새집증후군이라고만 생각했다. 광촉매도 뿌려봤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뿐 큰 효과는 없었다. “발암물질로 규정한 포름알데히드가 새가구에서도 나오는지 몰랐어요. 포름알데히드는 가구 구입 후 한 달이 지나도 70%가 남아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1~2년이 지나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동안 제가 겪은 증상이 모두 새가구증후군이었어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SEO, EO, E1, E2 등 4등급으로 나뉘는데, 그 중 포름알데히드가 많이 나오는 E2 등급은 유럽, 일본, 대만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김민정 씨는 “E2 등급도 아무렇지 않게 판매하는 가구점 판매업자와, 새가구증후군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경각심과 바른 인식을 갖게 해주고 싶다.”고 에코리안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새가구 증후군 퇴치 캠페인에 앞장서는 1기 에코리안은 ‘이제 동화에코보드 홈페이지가 건강한 가구를 찾는 주부들의 건강한 놀이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에코리안 활동을 하면서 가구 선택의 기준도 달라져 이제는 제일 먼저 친환경 자재등급 마크부터 확인하여 가구 속 자재가 얼마나 건강한지 꼼꼼히 따져 본다는 1기 에코리안 김민정, 신현정, 신수재 씨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가 있는 가구로 교체한 후 아토피로 고생하던 아들의 피부가 싹 나은 것을 경험한 신현정 씨는 에코리안 활동으로 가구 선택이 얼마나 중요인지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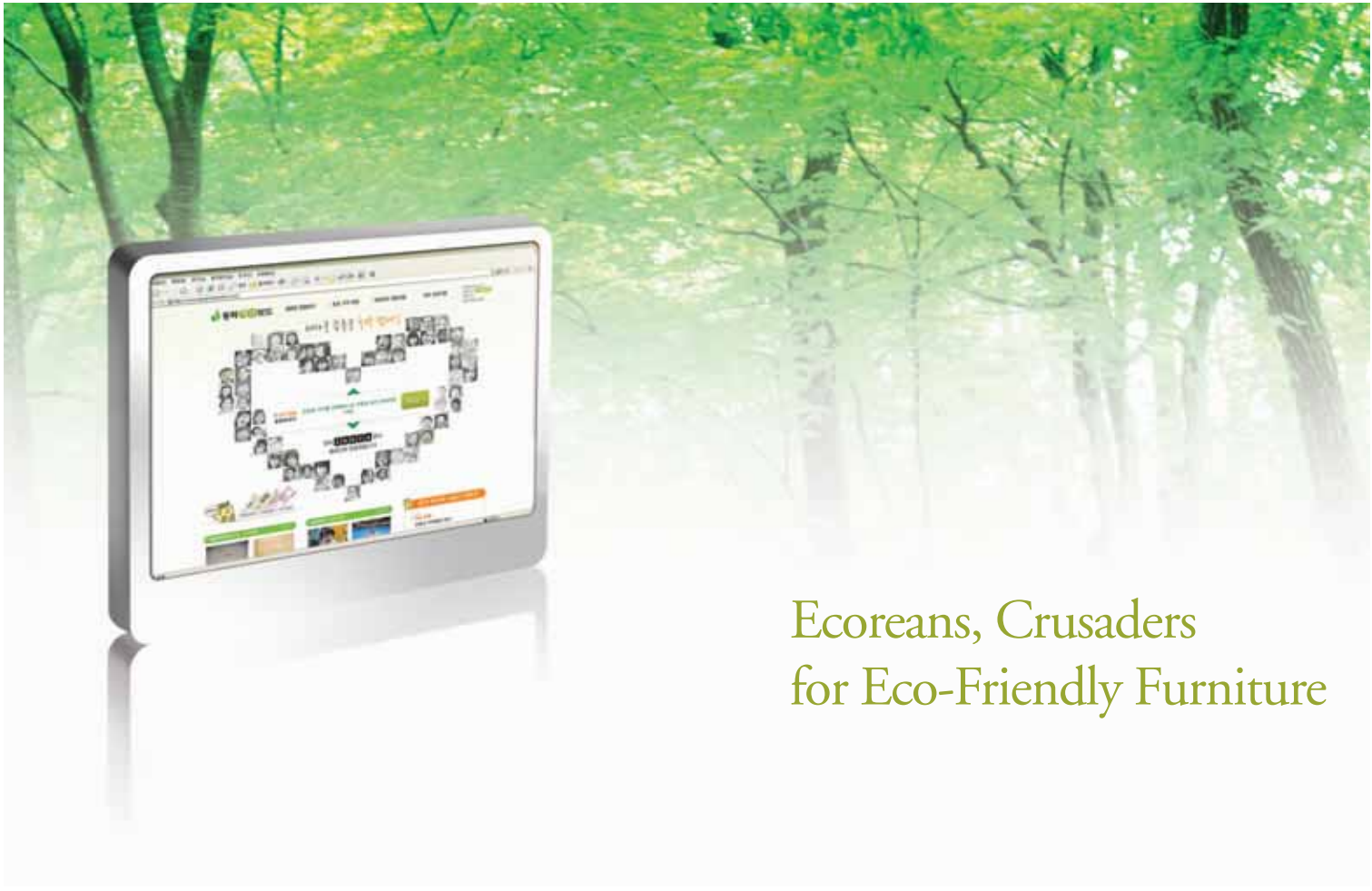


Ecoreans, Crusaders for Eco-Friendly Furniture

A launching ceremony was held for some 200 “Ecoreans” in September at the Dongwha Enterprise headquarters in September. The term “Ecorean” was coined by putting together the words “eco” and “Korean.” It refers to homemakers who are spearheading efforts to fight the sick furniture syndrome. The Ecoreans came together with a determination to inform consumers of the seriousness of the sick furniture syndrome caused by formaldehyde and to contribute to staving it off. Ecoreans inform consumers about serious problems caused by formaldehyde on their blogs and online communities. They also visit major furniture shops and promote eco-friendly furniture materials.

Fighting Sick Furniture Syndrome “First, I will check for eco-friendly marks as well as Dongwha’s eco-marks when picking furniture to ensure that my family’s health is not jeopardized. Second, I will notify consumers about the dangers of the sick furniture syndrome and help some 50 million consumers in the nation choose “healthy” furniture. The first class of Ecoreans works hard to fulfill the two aforementioned purposes. The group plays the role of prosumers by spreading word about the danger of the sick furniture syndrome caused by formaldehyde, which causes cancer. The group also visits furniture stores and posts feedback on Dongwha Eco Boards’ website (www.dongwhainside.co.kr). Currently, a campaign on combating the sick furniture syndrome is underway on Dongwha Eco Boards’ website. Participants of the campaign vow to fight the syndrome by leaving messages on the website after watching a video that shows the harmful effects of formaldehyde. Ecoreans are the key players in this campaign.”

A Crusader for Eco-friendly Furniture Ecoreans randomly visit nearby furniture stores or model houses to check whether eco-friendly materials were used in making furniture. They post their findings on the Dongwha Eco Boards’ website as well as on online blogs. Here are some of the postings:



온라인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새가구증후군의 심각성을 알리며, 주요 가구 매장을 방문해 친환경 가구자재의 정보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1기 에코리안



Ecoreans, Crusaders for Eco-Friendly Furniture

1기 에코리안은 무작위로 인근 가구매장이나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해 친환경 가구자재 사용 현황과 매장 정보 등이 포함된 탐방후기를 홈페이지 '생생가구리뷰'와 온라인 블로그, 카페 등에 올린다.



“I went to buy a bed for my child. But most of the salespeople were not aware of eco-marks. I believe that the labeling of eco-marks should become mandatory.” (Kim Jee-yeon)

“I was hoping that there would be something different about furniture stores in department stores. However, I was disappointed when I found that other than having fancier designs and being pricier, furniture in malls was no difference from furniture sold in outlets. I would like to thank Dongwha Eco Board for providing this opportunity to personally check the safety of furniture and for setting the standard of ‘healthy’ furniture.” (Kim Hye-ran)

Ecoreans’ feedback provides details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urniture brand and offers tips on choosing good furniture. Ecoreans also post evaluations on furniture stores’ services and products. They make suggestions as to what certain stores could do to improve their customer service.

Story of a Victim of Sick Furniture Syndrome “I have moved three times during my five-year marriage. Every time, I moved to a new apartment. I turned on the heating, opened the doors and even placed hardwood charcoal and onions around the house. But I kept having headaches and indigestion and my eyes were sore all the time,” said Kim Min-jung, an Ecorean. Kim thought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sick home syndrome.

“I didn’t know that formaldehyde could be emitted by new furniture. I found out that 70 percent of formaldehyde remains in furniture even after one month of purchase. What was more shocking was that formaldehyde continues to be emitted even after one or two years. It turns out that all this time I had been a victim of the sick furniture syndrome.”

“I wanted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formaldehyde, as many consumers and salespeople are unaware of the severity of the syndrome. I found that many furniture stores sell the grade E2 furniture without any hesitation. The grade E2 furniture has the highest formaldehyde emission level. It’s banned from sale in Europe, Japan and Taiwan.”

Through various activities, Ecoreans hope that the Dongwha Eco Board website will become a healthy playground for homemakers who are looking for ‘healthy’ furniture. 🌿

글
정효진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
By Chung Hyo-jin [Dong-a Ilbo Reporter]

생활공간 속 녹색혁명, 그린홈(Green Home)

정부가 올해 초 녹색 뉴딜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을 발표하면서 그린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정부는 2018년까지 그린홈 100만 채를 새로 짓고 기존 주택 중 100만 채를 그린홈으로 개·보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린홈이란 ‘그린(녹색)’이란 단어에서 느낄 수 있듯 친환경주택을 말한다. 냉방, 난방, 조명 등을 사용할 때 화석연료 소비를 최소화한 주택이면서 각종 건축자재도 최대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짓는 주거공간을 일컫는 용어다. 한마디로 그린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거나 최소화한 주택인 셈이다. 그래서 친환경주택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린홈을 ‘기름 덜 먹는 집’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에서 화력발전량의 10%를 수력,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로 바꾸면 연간 17억6000만 달러(약 2조600억 원)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그린홈은 아직 익숙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연구와 보급이 진행돼 왔다. 전통적으로 환경오염과 이에 따른 기후변화에 민감한 유럽에서는 이미 2001년 ‘초에너지절약주택 시범보급 사업(CEPHEUS)’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이를 통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을 중심으로 1만 채 이상의 초에너지절약주택(패시브 하우스)이 보급됐다. 한국 정부가 그린홈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이런 국제적인 추세도 반영돼 있다.

건자재업계는 정부의 그린홈 정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이다. 집 안팎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가운데 60%가량이 냉·난방과 조명에 소비되는 만큼 단열 효과가 높은 건자재 개발이 그린홈 구현의 제1과제이기 때문이다.

동화홀딩스는 일본 단독주택 시공업계 1위인 스미토모임업(住友林業)과 함께 목구조 주택을 전문 설계, 시공하는 합작법인 동화SFC하우징을 세우며 목구조 주택 시장에 뛰어들었다. 사실 아파트 주거 문화가 대세인 국내에서는 목구조 주택에 대한 수요가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

지면서 내구성은 물론이고 단열효과가 좋은 목구조 주택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이 동화의 판단. 실제로 목재는 열전도율이 콘크리트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매년 신축 주택의 80%가 목구조일 정도로 친환경 주거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가구 속자재로 사용되는 파티클보드(PB)도 그린홈 과제를 풀기 위한 숙제다. PB만큼 요즘 많이 쓰이는 건자재도 없다. 거실 입구 신발장에서부터 부엌 싱크대, 거실장, 붙박이장 어디하나 안 쓰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 버린 나무 자재들을 재활용해 만드는 PB는 나무 가루를 뭉쳐 만들다 보니 엄청난 양의 접착제가 사용된다. 접착제 성분과 양에 따라 새집증후군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그래서 PB는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친환경적인 E0부터 가장 저급인 E2로 등급이 나뉜다.

건자재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 중인 가구의 70%가 저급 자재인 E2 등급을 사용한다. 가구나 아파트 인테리어를 고를 때 외관만 보고 고르던 주부 소비자로서는 등골 오싹해지는 이야기다. 하지만 목재 전문가가 아닌 이상 PB 등급을 육안으로는 구분하기 힘든 것이 현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PB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동화기업은 최근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 자재 브랜드 ‘동화에코보드’를 선보이면서 ‘친환경 자재등급 표시제’를 시작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한 국제적인 추세와 유가에 민감한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린홈 개발과 보급은 계속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브랜드나 입지가 아닌 에너지 소비량 또는 탄소 배출량, 그리고 친환경 건자재 사용 여부가 ‘좋은 집’과 ‘나쁜 집’을 구별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로 여겨질지 모를 일이다. 그린홈이 일반화되기 전에 독자들도 집에서 TV 시청과 냉난방 사용 등 에너지 소비를 자제하는 작은 생활 습관부터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



Green Home - Green Revolution within Living Space

Early this year, the government said that it would build one million green homes and repair another one million houses to make them eco-friendly as part of its low-carbon green growth policy.

Green homes refer to eco-friendly houses. They use minimum fossil fuels in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lighting. They are built with the most eco-friendly materials and pose minimum harm to the environment. A recent study has found that Korea can save around \$1.76 billion annually if it replaces 10 percent of its thermal power generation with alternative energy such as water or solar power.

While the concept of green home is still new in Korea, research and supply of eco-friendly houses has been under way in other countries for quite some time. In 2001, Europe, which is sensitive to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amifications of climate change, launched the Cost Efficient Passive Houses as European Standards (CEPHEUS) project. In line with the project, more than 10,000 passive houses, or ultra-low energy houses, were supplied in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The trend was apparently reflected in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supply green homes.

Companies specializing in construction material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government’s green home project, as the development of thermal insulating materials is the priority in its implementation. About 60 percent of energy us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use is estimated to go into air conditioning, heating and lighting. Dongwha Enterprise, which is famous for its wooden floors, entered the wood-frame house market by founding Dongwha SFC Housing, a joint venture with Japan’s Sumitomo Forestry Company. Demand for wood houses in Korea is relatively low, as most Koreans live in apartments. However, Dongwha

believes that the wood-frame house market will expand, as interest in eco-friendly houses has been on the rise.

The thermal conductivity of wood is only one-tenth of that of concrete. In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some parts of Europe, around 80 percent of houses built every year have wood frames, which clearly demonstrates the popularity of eco-friendly houses in those countries. Among construction materials, particle boards (PB) are the most widely used. Since PBs are made from recycled wood, a significant amount of adhesives is used to lump together wood tar. It is already well known that formaldehyde, a cancer-causing agent, is emitted when a large amount of substandard adhesives is used in PBs. The most environmentally friendly PBs are of grade E0, while the least eco-friendly ones are of grade E2.

According to construction materials firms, about 70 percent of furniture distributed in the nation are made from PBs of grade E2. Consumers who so far had based their purchasing decisions on the exterior design of furniture and decorative products were shocked to learn this. It is almost impossible for ordinary consumers to identify the grade of PBs just by looking at them. Dongwha Enterprise, which holds a 40 percent share in the domestic PB market, has rolled out its eco-friendly Eco Boards and began labeling the environmental grades of its wood materials.

The development and supply of green homes is expected to expand continuously amid the global efforts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nother reason lies in Korea’s heavy reliance on imported oil. In the near future, energy-efficient houses built with eco-friendly materials will become the highest norm in the housing market. Until then, consumers can help the economy as well as the environment by saving energy. 🌱

즐거움 일터

거친 바다 위에서 대물과 찌하게 한판 승부를 벌인 후 업무에 복귀하면, 그만큼 더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한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던가, 동화인을 더욱 동화인답게 만들어 주는 클럽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Club Story _ 동화 낚시 동호회 : 일할 땐 실적을 낚고, 휴일엔 대어를 낚는다 中

Happy Workplace

The club members say that they feel more confident and inspired when they come back to work after having had a “fierce battle” with big fish in high seas. Some say that a person starts living only when he or she does what he or she wants to do. In that sense, club activities are truly valuable as they help Dongwha employees succeed at work.

Club Story _ Dongwha Fishing Club : On weekdays the club “catches” results, while on weekends it catches big fish



행복한 가을 동화 인천 세계도시축전과 함께한 동화

동화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10월 17일, 동화 전 사우들은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한 축제의 현장, 인천 세계도시축전으로 향했다. 삼삼오오 가족을 동반한 사우들은 우선 입구에서 동화 전용 게이트에 마련된 기념품과 가족 선물을 한아름 안고 기분 좋게 이벤트 공연장으로 안내를 받았다.

아내, 자녀와 장모님까지 초대한 박용환 사우(PB2공장)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신나게 지내고 장모님께는 큰 선물을 드리고 싶어 모시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보드경영컨설팅팀의 차인학 차장은 부모님, 아들, 딸, 처남, 조카 등 무려 아홉 명의 가족과 함께 참석한 최다 가족동원으로 못 사우들의 부러움을 샀다. 문화행사가 진행될 야외공연장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가족 폴라로이드 사진촬영 등이 한창이었다. 시나브로 동화가족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워가자, 승명호 부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행복한 가을 동화’ 1막 1장이 시작되었다. 승명호 부회장은 “작년 이맘 때 세계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이어졌고, 동화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여러분께서 온 힘을 모아 애써준 결과, 어렵고 힘든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지난 1년 간 노고의 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즐거움을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아카펠라 6인조 혼성그룹 ‘다이어’의 장르를 뛰어 넘는 다양한 무반주 음악, 여성 전자현악 4중주단인 ‘벨라트릭스’의 화려한 미니콘서트,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등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대표 비보이 ‘갬블러크루’의 현란한 몸놀림 등 3개 팀의 축하공연으로 공연장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동화인의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동화그룹은 인천의 대표기업이자, 전 세계에 국위를 선양하는 고마운 기업입니다. 2013년에는 2조 원 매출 목표를 꼭 이루길 바랍니다.”하고 환영인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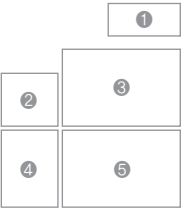
한 편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디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행운권 추첨 시간. 경품으로 MP3플레이어, 닌텐도 Wii, 소니 넷북, 김치냉장고, 그리고 1등 동화자연마루 25평 시공권 등이 푸짐하게 준비되었다. 추첨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 환호성과 탄성이 교차했다. 닌텐도 Wii에 당첨된 경영혁신팀 임미화 사우는 “원래 당첨 운이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날, 멋진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습니다.”라며 당첨 소감을 밝혔다.

가을 동화 문화행사 피날레는 남성 듀오 ‘나무자전거’가 장식했다. 전 국민의 애창곡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 흘러나오자 약속한 듯 모두 한 목소리를 이루었다.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한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

처럼 남아주기를...”

두 시간여에 이른 환상의 문화행사가 막을 내리자 동화가족은 특별히 마련된 야외식당으로 이동했다. 동화가족들은 뷔페식사와 즉석 요리 오찬을 나눈 후 본격적인 인천세계도시축전 관람에 나섰다. 각 나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도시관, 로봇과 과학세계로 떠나는 로봇사이언스 미래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하루를 보내는 내내 동화가족들의 얼굴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



① ③ 한국을 대표하는 비보이 ‘갬블러크루’의 축하공연 ② 행운권 추첨 1등에 당첨되어 동화자연마루 시공권을 받은 채용교육팀의 미셀 사우 ④ 엄마·아빠와 함께 가족 나들이에 나선 행복한 아이들



푸르고 높은 하늘 아래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고, 국화꽃 향기 흐드러진 그림 같은 어느 가을날. 그림 속으로 살짝 뛰어들어 싱그런 이야기 한 편 남기기 위해 동화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다.



Dongwha's Autumn Event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gathered in Incheon for a special event held against beautiful autumn foliage and the sweet scent of chrysanthemums.



1 2 인천 세계도시축전을 관람하며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는 동화가족들 3 4 축하공연을 보며 모두 한마음이 되어간 동화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 미소가 가득하다. 5 동화가족들은 특별히 마련된 뷔페식사와 즉석 요리로 오찬을 즐겼다.



Sending Love to Employees' Families

Dongwha employees gathered at Incheon for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Incheon on October 17. Accompanied by their families, the employees headed to the main venue of the event after receiving a bundle of souvenirs and gifts at a special gate that was set up for Dongwha workers.

“I am excited to be here with my kids today. I also brought my mother-in-law because I wanted to give her something special,” says Park Yong-fan who works at the PB 2 plant. Deputy Manager Cha In-hak at the Board Management Consulting Team brought nine family members, including his parents, son, daughter and brother-in-law. He was envied by the other participants for having the largest group of family members. The event also featured face painting for children and provided Polaroid services for family photos.

When Dongwha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gathered one by one near an outdoor stage, Dongwha Holdings CEO Seung Myung-ho greeted the crowd, signaling the beginning of the “Happy Dongwha in Autumn” event. Mr. Seung said Dongwha was affecte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hit the nation late last year, but thanks to the hard work of all employees, Dongwha was able to overcome hard times. He paid tribute to the employees’ endeavors made during the past year and wished that the autumn gathering would provide the opportunity for all participants to share their joys and encourage one another.

After Mr. Seung’s speech, a mini-concert took place featuring the six-member a cappella group DIA, the electric string quartet Bellatrix, and the popular b-boy group Gambler Crew. Also attending the event was Incheon Mayor Ahn Sang-soo, who called Dongwha Group a leading corporation in Incheon. He also lauded Dongwha for improving Korea’s national reputation and wished it to achieve its goal of two trillion won in sales in 2013.

Creating Beautiful Memories

Finally, “lottery time” arrived. Prizes included MP3 players, Nintendo Wii, Sony Netbook and kimchi refrigerators. The top prize was a Dongwha Nature Flooring coupon for 82.5 square meters of flooring. During the game, shouts of joy could be heard every now and then. Lim Mi-hwa from the Business Innovation Team, who won a Nintendo Wii, said she was thrilled to have won a great prize on such a special day.

The event ended with a performance by the male-duo Tree Bicycle, which sang a popular song with the lyrics saying, “I want to be an unforgettable memory to you, like a beautiful sunset. I will always remember our time together.” After singing along with the duo, the Dongwha employees headed to an outdoor restaurant. After enjoying a delicious meal, the participants took part in the Global Fair and Festival 2009 Incheon. They toured exhibitions dedicated to world cities and robots. Their smiling faces will remain in our memory forever. 🌿

동화 낚시 동호회

일할 땐 실적을 낚고, 휴일엔 대어를 낚는다



길을 잃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것은 삶이 이끌어 주리라 믿으며 일과 여가생활에 모든 정열을 불태우는 동화 낚시 동호회 회원들이 그들이다. 업무시간엔 온 힘을 다해 눈부신 실적을 낚다가, 휴일이 되면 펄펄 뛰는 대물을 낚기 위해 바다로, 강으로 향하는 그들을 가을의 끝과 겨울의 시작점에 놓여 있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만나 보았다.

차고 어둑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은 인천 연안부두. 출항을 한 시간 앞둔 새벽 3시가 되자 고요하던 선착장은 사람들의 발길로 분주해졌다. 어둠 속에서 동화 낚시 동호회를 애타게 기다리던 순덕호 역시 삼삼오오 모여든 회원들이 배에 오르자 육중한 선체를 우쭐거리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예약된 인원 모두가 탑승을 마친 시각은 새벽 4시. 회원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일사분란하게 자신의 조대를 찾아 릴을 고정시켰고, 배는 서서히 어둠 속 바다를 향해 키를 몰아갔다. 순덕호는 어스름 새벽이 밝아오는 6시 30분 쯤 영흥도 해상에 도착해 모터를 멈추었다. 배가 멈추는 기미를 보이자 회원들은 일제히 릴을 풀어 미끼를 바다에 던져 넣었다. 본격적인 미끼투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30cm급 광어와 우럭이 연달아 걸려들자 신바람난 동화 낚시 동호회들은 연거푸 미끼를 바꿔가며 더 큰 입질을 향해 힘껏 낚시 대를 투척했다. “낚시는 한마디로 손맛 때문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입질이 오는 순간 망설임 없이 낚아채야 하는데 대물인 경우엔 마치 지구를 끌어올리듯 짜릿한 전율이 전해 옵니다.” 낚시 삼매경에 빠져있던 김순용(동화기업 시설지원팀) 회원은 대물을 낚던 순간을 그렇게 묘사한다.

거친 바다 위에서 대물과 찌나게 환관 승부를 벌인 후 업무에 복귀하면, 그만큼 더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활력을 얻는다고 한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라고 했던가, 동화인을 더욱 동화인답게 만들어 주는 클럽 활동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가 있다. “피곤하냐고요? 솔직히 피곤하긴 하죠. 새벽부터 하루 온종일 물고기와 씨름하다 집에 돌아가면 녹초가 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룻밤 푹 자고 나면 몸과 정신이 말끔해져요.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가는 느낌이지요.” 허기순(동화기업 LPM 공장) 회원의 낚시예찬이 이어진다. “동화 낚시 동호회는 올해로 설립 10년째를 맞습니다. 민물과 바다로 나뉘어 연 2회 정도 대규모 남회대회를 이어오고 있고, 회원들 스스로 진행하는 번개모임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답니다. 연 2회 진행하는 남회대회는 회사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봄에 진행되는 민물낚시는 가족 동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 인원만 해도 100여 명을 헤아립니다.” 동호회의 대표직을 5년 쯤 맡아 오고 있는 이은석(동화기업 시설지원팀) 회장. 그는 지난 10년 동안 동화의 대표적인 동호회로 잘 이어져 오고 있는 동화 낚시 동호회에 대해 자부심이 무척 커 보였다. 🌿

연 락 처 이은석 회장 : 010-5568-9667 / 문영민 총무 : 010-5524-5186
동호회 카페 <http://cafe.daum.net/dhfishing>

이날 남회대회 우승은 표면재 공장의 주영철(우럭 부분 : 43cm), 기계팀의 안영상(광어 부분 : 58cm) 회원이 차지하였다.



On weekdays the club “catches” results, while on weekends it catches big fish

It was cold and dark at Yeonan pier in Incheon. At around 3 a.m., the fishing club members arrived at the dock. They were warmly greeted by Sun Duck-ho ship, which had been eagerly waiting for the group amid the pitch darkness of dawn. It was 4 a.m. when everybody got onboard the ship. All the club members were busy preparing



their fishing reels as the boat sailed towards the dark sea. The ship stopped when they reached the waters of Yeongheung Island around 6:30 a.m. The club members shortly unlocked their reels and began fishing. Several minutes passed before shouts of joy were heard one after another. As the group caught large halibut and rockfish, some measuring around 30 centimeters, the club members became excited and exchanged baits with the hope of catching even bigger fish. “I think the joy of fishing lies in pulling the rod at the right time. The minute you feel a fish is nibbling on your bait, you shouldn’t hesitate for a second and start pulling your rod. In case of catching a big fish, you feel a thrilling sensation that could rock the whole planet,” says Kim Soon-yong, a member of the club.

The club members say that they feel more confident and inspired when they come back to work after having had a “fierce battle” with big fish in high seas. Some say that a person starts living only when he or she does what he or she wants to do. In that sense, club activities are truly valuable as they help Dongwha employees succeed at work. “Am I tired? Sure, I am. I am completely exhausted by the time I get home after having spent an entire day for fishing. But what’s strange is that after having a good night’s sleep, my mind becomes clearer. My stress is completely gone,” says Huh Ki-soon, a club member. “The fishing club was founded ten years ago. Every year, the club organizes massive freshwater and sea fishing events,” says Lee Eun-seok, who has been heading the club for the past five years. 🌿

There are people who are not afraid of getting lost. They are members of the Dongwha fishing club. They go with the flow in everyday life, while being proactive and passionate both in work and leisure. On weekdays, they strive to “catch” big results, but on weekends they head to the seashore and riverbanks to catch big fish. We met with them during their trip to Yeongheung Island in Incheon.





인터넷 야구 해설가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박강현 대리

“색다른 TV 야구 중계로 활력 팍팍 전해 드립니다!”

“Stay tuned for unprecedented
TV baseball commentary!”

인터넷 개인 방송인 아프리카TV(www.afreeca.com/0818pooh)에 이색 야구 중계가 뿔었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일명 ‘롯데 자이언츠 편파 직접 중계방송’은 짧은 기간 내에 1만 7000명이 방문하였고 애청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300여 명에 이르는 등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캐스터이자 운영자인 동화기업 보드영업2팀 박강현 대리를 만나 유쾌한 방송 뒷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An unusual baseball commentary has appeared on the Afreeca TV Web site. A baseball commentary program that was launched in April has drawn some 17,000 visitors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has won the hearts of more than 300 people. We met Park Kang-hun, the key man behind the program and also an assistant manager at Dongwha Enterprise’s Board Sales Team 2.

박강현 대리는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다고 한다. 고향이 진해라서 늘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했는데 그 애정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다고 한다. 올해 초 박 대리는 나름 거창한(?) 구상을 했다. 막연한 꿈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야구 방송을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인 친구(심재식 씨)에게 그 구상을 이야기했다. 말쑥씨도 빼어나고 야구 지식도 해박한 친구가 단번에 호응을 했다. 곧바로 인터넷 개인 방송인 아프리카TV에 등지를 틀었다. 평일에는 직장일이 우선이라 건너뛰고 롯데 경기가 있는 주말에만 중계석에 앉았다. 자신은 캐스터, 친구는 해설위원을 맡았다. 방송국은 안방에 차렸다. TV 옆에 노트북을 연결해 지상파 방송 화면을 캡처해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경기 화면만 내보냈다. 그리고 진행자 목소리나 현장을 대신 자신들의 목소리를 입혀 색깔 있는 방송을 했다. 박강현 대리는 자신들의 방송 특징을 묻자 “기발하고 어치구니없는 멘트의 남발”이라고 표현했다. 정지된 화면을 두고 전문가적인 내용 대신 재미있는 해설로 보는 사람들의 폭소와 실소를 자아내는 중계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수비 실책으로 공이 관중석으로 넘어가면 그물망을 찢고서라도 얼른 뛰어가 공을 잡으라고 훈수를 두고, 못하는 선수는 군대 보내라고 악을 쓴다. 물론 외국 선수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기 일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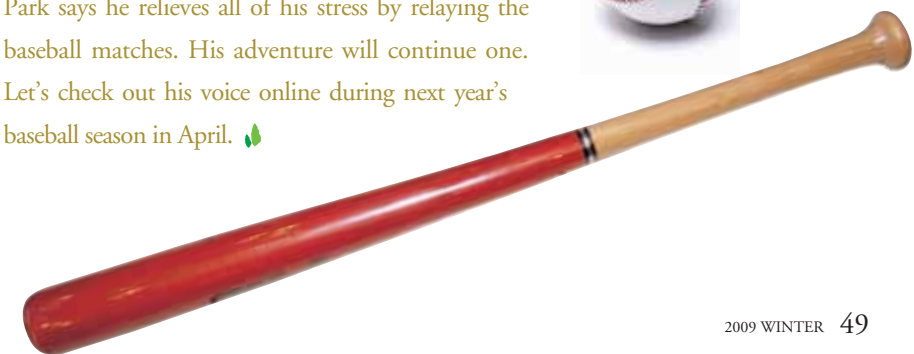
“보통 일반팬들은 자기 팀이 잘하면 박수를 보내고 못하면 실망해서 야유를 보내지요. 못해도 격려하는 골수팬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반팬 입장에서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중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롯데가 격전을 벌여야 중계도 신나고 스릴감이 넘친다. 반면 크게 지면 흥이 나지 않아 멘트도 떠오르지 않는다. 방송의 또 다른 재미는 채팅창으로 실시간 뜨는 시청자들이 의견에 바로바로 응답하며 같이 호흡하는 것이다. 공중파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개그 야구 해설에 시청자들의 반응도 열화 같다. 야구 방송 덕분에 일주일에 한번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에 살맛 난다는 박강현 대리. 그의 즐거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내년 4월 프로야구 시즌에서 호쾌하게 해설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

Park says he has loved baseball since he was a kid. He always cheered for the Lotte Giants given that he was from Jinhae. Early this spring, Park made a big decision to make a foray into baseball broadcasting, which had always been his dream. Park shared his plans with his best friend, Shim Jae-sik, who was an eloquent baseball-savvy. Shim immediately expressed support for Park’s aspiration and the pair set out to relay weekend games via the Internet. During the week, Park worked for Dongwha and on weekends he acted as an anchor, while his buddy, Shim, became the commentator of their program that was sent out via Afreeca TV.

The pair set up their own station in Park’s house. They captured the images air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sent them out through the Internet by linking their laptop computers to a television. Then they added their voices to the moving images. Asked about the characteristic of their program, Park said it was a series of both witty and goofy comments. The program seeks to make people laugh and truly enjoy baseball by making smart commentaries of every move shown on screen. Park said he and Shim relayed the gam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baseball fans who applauded when their team won and booed when their team was losing. That’s why their relaying becomes all the most exciting when Lotte wins.

Another exciting part of the program is chatting with viewers in real time and receiving their feedback. Park says he feels like a celebrity when he receives feedback. Park says he relieves all of his stress by relaying the baseball matches. His adventure will continue one. Let’s check out his voice online during next year’s baseball season in April. 🍀



뜨거운 열정과 꿈이 있는 ‘나는 동화인’

I am a member of the Dongwha family equipped with passion and dreams

최누리 사원 _ 동화기업 영업지원팀

안녕하세요. 동화기업 영업지원팀의 막내 신입사원 최누리입니다. 이렇게 동화에 입사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납니다.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며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동화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hoi Nu-ri _ Sales Support Team, Dongwha Enterprise

I am so overwhelmed with emotion for being able to work for Dongwha. I will do my best to work hard and be concentrated. Thank you.



이창수 과장 _ 동화기업 마케팅기획팀

안녕하세요. 동화기업 마케팅기획팀의 이창수입니다. 동화의 새로운 성장에 한 축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Lee Chang-soo _ Manager, Marketing Planning Team, Dongwha Enterprise

I want to become a key player in helping Dongwha to grow.



권혜림 사원 _ 동화자연마루 강화마루공장

안녕하세요. 동화자연마루 강화마루팀의 막내 권혜림입니다. 정말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동화가 글로벌 Top-Tier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won Hye-rim _ Laminate Flooring Factory, Dongwha Nature Flooring

It is a great honor to be able to work at Dongwha. I will use all my capabilities so that Dongwha can become a top-tier global company.



조순근 대리 _ 동화디벨로퍼 개발사업팀

나무를 연상하게 하는 동화의 기업문화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멋진 디벨로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Cho Soon-keun _ Assistant Manager, Development Business Team, Dongwha Developer

I would like to be remembered as a great developer who made "flowers bloom" in Dongwha's corporate culture, which often reminds me of a tree.



첫 만남은 항상 사람을 설레게 한다. 설렘 가득한 마음을 안고 2009년 하반기 신규 입사자들이 동화의 문을 두드렸다. 패기와 열정, 팀워크까지 두루 갖춘 8명의 신규 입사자들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채워나가며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동화에서 성공적인 미래를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는 그들을 만나보자.

When you meet somebody for the first time, you feel a little nervous with anticipation. That is exactly how Dongwha's new employees felt when they joined the company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Equipped with passion and strong teamwork skills, the nine new employees learn something new every day at Dongwha and nurture their pride of being a member of the Dongwha family. Let's meet with these young enthusiasts.

박새롬 사원 _ 동화홀딩스 경영관리3팀

안녕하세요. 동화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한 걸음씩 배우며, 성실하고 즐겁게 일하겠습니다. 동화 파이팅~!

Park Sae-rom _ Business Management Team 3, Dongwha Holdings

I am thrilled to be a part of the Dongwha family. With a humble heart, I plan to learn a lot and work diligently and joyfully at Dongwha.



최경호 대리 _ 동화홀딩스 세무팀

Choe Kyeong-ho _ Assistant Manager, Taxation Team, Dongwha Holdings

Be happy~

이석구 과장 _ 동화자연마루 도어특판팀

안녕하세요. 이석구입니다. 앞으로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과 함께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모든 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Lee Suk-gu _ Manager, Door Direct Sales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I believe that the success of the company translates to my personal success. I will do my best in everything I do and will always stay open to new things.



김재환 대리 _ 동화디벨로퍼 개발사업팀

동화에 자부심을 느끼며, 새로운 도약을 동화와 함께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Kim Jae-hwan _ Assistant Manager, Development Business Team, Dongwha Developer

I am proud to be a Dongwha employee. I will do my best to help Dongwha in taking big leaps.

정미경 사원 _ 동화디벨로퍼 개발사업팀

안녕하십니까? 동화디벨로퍼 개발사업팀 신입사원 정미경입니다.
동 : 동행이란 상대방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을 때 가능하며 손을 잡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 : 화합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동화'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습니다.

Chung Mi-kyeoung _ Development Business Team, Dongwha Developer

I would like to work for Dongwha for the rest of my life. I will do my best in all my duties to achieve unity and be a passionate worker.



선물하는 책 책 책, 감동은 두 배!

Books that are given
as gifts deeply touch the hearts of receivers.

같은 책이라도 읽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감동과 여운이 다르다. 깊어가는 겨울, 동화인들이 직장동료와 상사, 후배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책을 선물하였다. 서로에게 사연을 적어 마음을 표현한 동화인들의 책 선물에는 감동도 가득하다. 동화인들 모두 선물로 받은 책을 읽으며 그 어느 해보다 훈훈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Different people have different opinions about the same book. With the arrival of the cold season,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presented one another with books. Personal notes written in books add more sentiment to these precious gifts. We hope that all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ho have received books will have the warmest winter y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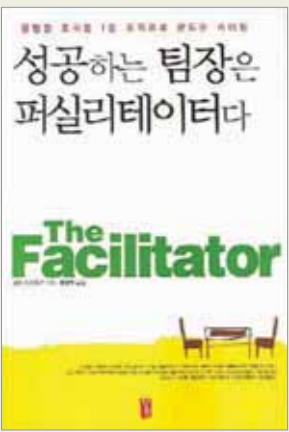
긍정이 걸작을 만든다
Positive Attitude Creates Masterpieces

받는 사람. Receiver
대성목재 EHS팀 박종근 과장
Park Joong-keun, Manager, EHS Team, Daesung Wood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진취적으로 일하시
는 과장님의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이 책을
박종근 과장님께 선물합니다.

The way you handle things with a
progressive mind despite many hardships
has always inspired me. I hope you enjoy
this book.

선물하는 사람. Giver
대성목재 기계팀 안석규 대리
An Suk-kyu, Assistant Manager,
Mechanical Engineering Team, Daesung Wood



성공하는
팀장은 퍼실리테이터다
The Facilitator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자연마루 PMU팀 신호철 차장
Shin Ho-chul, Deputy Senior Manager, PMU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새로 시작하는 PMU팀의 팀장으로서 팀을 잘
이끌어주시길 바라며 신호철 차장님께 이 책을
선물합니다.

I present you with this book in hopes that
you will be a great leader for the new
team.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자연마루 PMU팀 김기태 과장
Kim Ki-tae, Manager, PMU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WE 프로젝트
WE Project

받는 사람. Receiver
대성목재 PB공장 김호기 사원
Kim Ho-ki, PB Plant, Daesung Wood

업무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가 아닌
‘우리’를 배울 수 있는 이 책을 김호기 사원에
게 선물합니다.

This book offers the right direction in
carrying out duties and focuses on the
“we” factor instead of the “I” factor. I
hope you enjoy it.

선물하는 사람. Giver
대성목재 PB공장 권인규 대리
Kwon In-kiw, Assistant Manager,
PB Plant, Daesung W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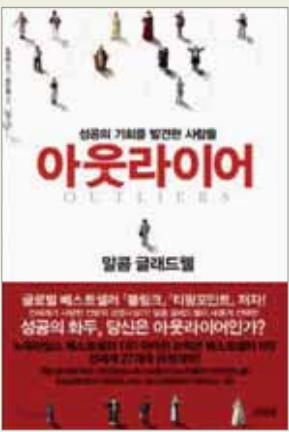
편지
Letter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홀딩스 보상/HRIS 이민지 사원
Lee Min-ji, Remuneration/HRIS, Dongwha Holdings

같은 팀이지만 떨어져서 일하기 때문에 늘 마
음이 쓰였던 이민지 사원에게 편지를 쓰는 마
음으로 이 책을 선물합니다.

I give you this book as if I’m writing a
letter to you since we work in different
rooms even if we belong to the same
team.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홀딩스 보상/HRIS 송희선 차장
Song Hee-sun, Deputy Senior Manager,
Remuneration/HRIS, Dongwha Holdings



아웃라이어
Outliers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홀딩스 경영혁신팀 임미화 사원
Lim Mi-hwa, Business Innovation Team,
Dongwha Holdings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후배 임미화 사원에게 이
책을 선물하여 성공하는 비밀을 알려주고 싶습
니다.

I hope you will learn a few secrets to
success from this book.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홀딩스 성과관리팀 김안나 대리
Kim An-na, Assistant Manager,
Performance Management Team, Dongwha Holdings



핀란드 디자인 산책
Design Finland in My Perspective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자연마루 스페이스디자인팀 임주연 사원
Lim zoo-yeon, Space Design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핀란드 디자인 산책〉을 통해 디자인월 제품
담당자로서 더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임주연
사원에게 이 책을 선물합니다.

I hope you will take further strides as a
key person in charge of Dizainwall
products.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홀딩스 성과관리팀 김경아 과장
Kim Kyoung-a, Manager,
Performance Management Team, Dongwha Holdings

CEO에서 사원까지
마케팅에 집중하라

Marketing as Strategy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홀딩스 성과관리팀 김경아 과장

Kim Kyoung-a, Manager, Performance Management Team, Dongwha Holdings

변화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김경아 과장에게 어울리는 책이라 생각되어 선물합니다.

I thought this book was perfect for you since you're very interested in implementing changes.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유원경 대리

Ryu Won-kyung, Assistant Manager, Management Support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넛지

Nudge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안정은 사원

An Jung-eun, Management Support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다른 팀으로 자리를 옮기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넛지>를 읽으며 머리를 식혔으면 하는 마음에 이 책을 선물합니다.

I hope this book will help you relax a bit. It seems like you've been having a hard time since you moved to another team.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자연마루 공사관리팀 이범석 대리

Lee Beom-seok, Assistant Manager, Construction Management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설득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Persuasion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자연마루 건장재영업팀 박성원 대리

Park Sung-won, Assistant Manager, Flooring & Interior Materials Sales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직유통에서 효과적인 설득 기술로 성과를 창출해주시 바랍니다.

I hope that by reading this book you will learn effective persuasion skills that will help you with your new duties.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자연마루 사업개발팀 이경형 과장

Lee Kyoung-hyoung, Manager, Business Development Team, Dongwha Nature Flooring

강점에 집중하라

Put Your Strengths to Work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홀딩스 보상/HRIS 이종호 과장

Lee Jong-ho, Manager, Remuneration/HRIS, Dongwha Holdings

성공하려면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갈고 닦아야 한다고 하여 이 책을 선물합니다.

This book tells reader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polish your strengths than to make up for your flaws in order to succeed.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홀딩스 보상/HRIS 김신화 사원

Kim Shin-hwa, Remuneration/HRIS, Dongwha Holdings

누들로드

Noodle Road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홀딩스 성과관리팀 김안나 대리

Kim An-na, Assistant Manager, Performance Management Team, Dongwha Holdings

<누들로드>는 익숙한 소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 생각되어 선물합니다.

This book helps you gain a new perspective on the familiar theme of "noodle road."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홀딩스 경영혁신팀 임미화 사원

Lim Mi-hwa, Business Innovation Team, Dongwha Holdings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The Long Lived and to Be Lived Miracles

받는 사람. Receiver

동화기업 표면재연구팀 이은경 대리

Lee Eun-kyoung, Assistant Manager, Surface R&D Team, Dongwha Enterpr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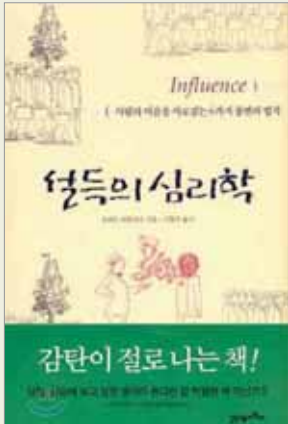
힘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이 책을 선물합니다.

I hope this book helps you overcome hard times.

선물하는 사람. Giver

동화기업 패턴사업운영팀 이정은 사원

Lee Jeong-eun, Pattern Business Team, Dongwha Enterprise



♣ 이외에도 많은 동화인들이 선·후배, 동료에게 책을 선물하였습니다 ♣

기술사업화

받는 사람 동화기업 연구기획팀 김정현 과장
선물하는 사람 동화기업 연구기획팀 조대원 대리

서른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받는 사람 동화홀딩스 재무팀 김주란 사원
선물하는 사람 동화홀딩스 재무팀 하태일 사원

필립 코틀러
마케팅을 말하다

받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유원경 대리
선물하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강준원 부장

전략의 탄생

금융지식의 힘

신혼 3년 재테크
평생을 좌우한다

받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PMU팀 최석현 과장
선물하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PMU팀 신호철 차장

받는 사람 동화홀딩스 재무팀 하태일 사원
선물하는 사람 동화홀딩스 재무팀 김주란 사원

받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공사관리팀 이범석 대리
선물하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안정은 사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1Q84

공중그네

받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최유미 사원
선물하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경영지원팀 김한나 사원

받는 사람 동화홀딩스 보상/HRIS 송희선 차장
선물하는 사람 동화홀딩스 보상/HRIS 이종호 과장

받는 사람 동화홀딩스 보상/HRIS 최윤주 사원
선물하는 사람 동화홀딩스 보상/HRIS 이민지 사원

불멸의 인간학
사기 1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받는 사람 동화홀딩스 보상/HRIS 김신화 사원
선물하는 사람 동화홀딩스 보상/HRIS 최윤주 사원

받는 사람 동화홀딩스 경영혁신팀 서강석 차장
선물하는 사람 동화기업 마케팅기획팀 최주영 차장

받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사업개발팀 이경형 과장
선물하는 사람 동화자연마루 사업개발팀 오영화 대리



우리 사보 **나눔동화**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Green Dongwha Is Nourished by Your Love.

- 사보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싣는 공간입니다. 사보에 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또 내가 겪은 일들을 동화인과 공유하고 싶거나 사진과 함께 사보에 남기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보지기를 찾아 주세요.
"Green Dongwha" is about you. If you want to share your stories with other Dongwha members or post your photographs, feel free to contact us anytime.
- 동화의 수많은 대리점은 동화의 가족입니다.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특별한 일이 있거나 대리점을 알리고 싶을 때, 추천하는 대리점이 있을 때 사보지기에게 연락주세요. 동화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Dongwha's representative stores are also the members of the Dongwha family. We are ready to listen to your feedback. If you have any stories to share with us or want recommend any specific store, please contact the PR and Corporate Culture Team of Dongwha Holdings. We ask for your active participation.
- 기타 사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보지기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홀딩스 커뮤니케이션팀 박숙영 과장
Communication Team, Dongwha Holdings
Tel. 02-2122-0579 E-mail. suying2@dongwha-mh.com



같은 아파트에 산다?
같은 마루 위에 산다!

이웃에게서 "마루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땐,
"어떤 마루"했냐 묻지 마시고
"어떤 동화자연마루"했는지 물어보세요
집은 모두 달라도 마루만큼은
대한민국 마루판매 1위 - 동화자연마루입니다